

4/5(화) 에스라 묵상 14

에스라 7:27-8:2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송축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자질이나 명성 또는 아닥사스다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의 섭리임을 찬양하게 됩니다(27-28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비록 에스라는 포로의 신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스라를 페르시아의 왕과 모든 권세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얻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제 2차 포로 귀환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셉을 바로에게 인정을 받게 하셔서 그를 통해 야곱의 식솔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200만명도 넘는 한국가를 세우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요셉과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그의 인생을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창 45:7-8,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 분의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선택은 때로는 연약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결코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이상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2차 귀환자들

에스라 8장 1-14절은 제 2차 귀환자들의 여러 족장들의 이름과 그들과 함께 올라온 족속의 남자들의 수효가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에 하나님께서 제 1차 귀환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바로스 자손, 엘람 자손, 스바다 자손, 아스갓 자손, 바합모압 자손, 아스갓 자손, 바합모압 자손, 아도니감 자손, 아딘 자손, 비그왜 자손).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이상 이방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락함을 저버리고 긴 여행과 새로운 땅에서 펼쳐질 고난과 불편함을 몸소 받아들이기로 다짐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8장 1-14절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족보입니다. 한편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서 포로 귀환자들을 모았는데 그들 중에 레위 자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 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족속의 모든 족장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17절,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 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자였고 사역을 일임하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21절,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 이유는 자신들의 가는 길에 있어 하나님께 평탄한 길과 은혜를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철저한 인간적인 준비와 더불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에스라와 백성들의 갈 길을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자만해지고 더이상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방종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항상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잘 분별하고 또 그것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환경 그리고 상황을 자주 핑계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주님께 믿고 맡겨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잡고 컨트롤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에스라와 같이 올바른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고후 8:21,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식량 위기:

NYT 는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을 겪고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이상 기후,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료품값 급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세계 곳곳이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등 빈곤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 위기에 대해 전 세계가 인식을 같이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Youth Group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중동 정안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